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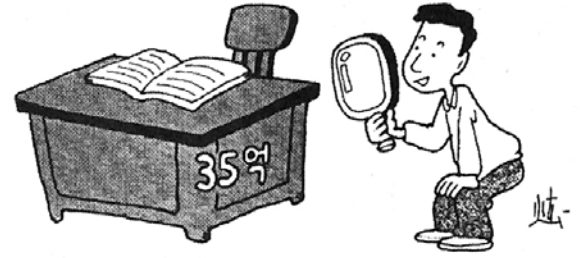
지 상 법 석

수천번씩 생사 윤회

“뿌리가 없고 햇빛이 없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생명은 상의 상존 인과의 연속입니다”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니까 안떨어 집니까? 라고 옛날의 학인이 했던대로 물었 습니다. 백장스님은 취모검의 칼날 같은 섬광이 번뜩이는 목소리로 “불매인과(不昧因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한마 디 아래 크게 깨쳐 스님에게 절을 하고 “저는 이미 야호의 곁데기를 벗어났습니다. 사체는 뒷산 바위 아래 있습니다”라더니 사라졌습니다. 백장스님은 부전을 불러서 “점심공양 후에 죽은 스님의 장례가 있으 니 준비하라”고 일러 놓고 대중을 이끌고 뒷산에 가서 죽은 야호의 시체를 수습해 다 대중들의 독정속에서 성대히 장례를 치 러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인연의 굴레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 하시겠습니까. 그러 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끝추세워 들어가 할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들어 보세요. 그날 밤 백장스님은 법당에 대중들을 불 러 놓고 그 노인의 이야기며 낫의 장례에 대한 사연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모든 대중 이 경외의 눈빛으로 스님의 이야기를 경청

비라와 가지를 들어 보아신 뜻을 오직 가 십만이 알고 방긋이 웃었듯이 말합니다. 백 장이 뱀을 맞고 황백이 때린 것, 이것은 이 미 천지일체의 진리를 뛰어 넘은 곳에서의 행동인 것입니다. ‘불락’에 야호가 되고 ‘불매’에 야호를 벗어 나다는 것은 어불성 설 입니다. 그래서 황백은 스승이 입으로 말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란 뜻으로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경지에서 스승의 뱀을 후려 찢던 것 아니겠 습니까. 그리고 보면 백장도 입을 열어 그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입을 여는 그 순간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태동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연의 초월일 수 없 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분발을 하 면 천리만리 떨어진 것이고 한시도 함 없이 불락불매하면 기원이 닿아서 일체만 들이 한당어리임을 알게 되고 그때에 이르 면 나도 없고 야호도 없을뿐 아니라 뱀을 때리는 손도 맞는 뱀도 없어 삼라만상과 무위묘법이 다 자기것 아님이 없을 것입니 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과의 실상을 바로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서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8 양형진 이로아식

우리는 눈과 귀, 코, 혀, 피부로 객관 세계를 감지하며 살아간다.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흔히 오관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 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객관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 작용을 각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 하며 이를 총칭하여 전오식(前五識)이라고 한다. 이 전오식은 모두 사물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전오식에 의식을 더하여 육식이라 하는 데, 여기서의 의식은 전오식의 지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각 작용은 물론 추상적인 사유나 지성, 감정, 의지, 상상력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육식불교에서는 이 육식만으로 인간을 파악할 수 없다고 믿어 마음의 심층을 탐구해 나간다. 제6식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잠재적인 자의의식과 비슷한 마음을 제7 말라식이라고 한다. 이는 자기에게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기성이

상의 예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이로아식이란 무시 이래 우리 인간에게 축적된 경험의 전체이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35억년전 이 지구 상에 생명체가 태어난 이후, 무수한 생명체가 겪었던 일체의 경험이 마음 깊숙이 감추어져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로아식이다. 그래서 잠식(藏識)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경험이 축적되어 가는 것을 훈습(熏習)이라고 하며, 훈습되는 경험을 종지라 하기 때문에 또한 종지식(種子識)이라고도 한다. 종지식은 의식의 전면에 부상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과거의 경험으로서 저장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를 있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예로 든 의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감정은 과거의 경험이 원인이 되는 이로아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현재의 경험은 또한 이로아식에 저장되어 미래에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말을 쓴 것은 이로아식에 의하여 말라식

‘인과법 얽매이지 않겠다’ 원력으로 정진 거듭해야 ‘이웃은 나와 한몸’ 알게되면 보살행 저절로 하게돼

는 것이지만 새싹이란 존재없이 햇빛과 물의 존재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 사바중생계의 현실인 겁니다. 범부중생은 인과의 실체 속에 얽매어 끌려 다니기 때문에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연자방아가 도는 것처럼 생사고해에서 해업을 치면서 하루밤 하루낮에도 수천번을 나고 죽고 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도 “은갖 중생은 번뇌로 지어진 업에 의해 그 육신과 사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제몸과 사는 세계와 은갖 일들이 업(業)을 제쳐 놓고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업이 인이되어 그 파르르세 연이 일어난다는 이치인데 중생은 중생의 탈을 벗어내지 못하는 한 스스로의 업 자체가 자신의 모습과 살아가는 터전을 결정짓는 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과 법칙에 얽매인 사람은 무량세상을 나고 죽는 깊은 늪에서 헤매며 고통과 선과 악의 업 때문에 인과응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중생인 것입니다. 인과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마저 헌 신발처럼 버리고 출가수행을 하신 동기가자 원력입니다. 우리가 이 늪을 벗어나 일체법계의

백장스님이 설법을 하실 때마다 한 노인이 늘 청중들 뒤줄에 앉아 열심히 법문을 들었습니다. 설법이 끝나 대중들이 물러갈 때면 이 노인도 소리없이 물러가고 또다시 설법이 있으면 조용히 뒷줄에 와 앉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때 큰 산림법회가 끝나는 날 백장스님의 설법을 다 들은 대중은 각기 물러 갔는데 노인 혼자 그 뒷자리에 부동의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장은 뒤신대 조용히 설법을 듣더니 오늘은 가시지 않고...” 백장스님이 궁금해 이렇게 물어 봤더니 노인이 조용히 대답하기를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적 가섭불의 재세시에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때 한 학인이 제게 물기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연에 떨어지니까 안떨어지니까’ 하여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昧因果)’ 라고 했습니다.그 한마디 말로 인해 오백생을 야호(野狐·들여우)의 몸이 되었습니다. 청컨대 스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마디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야호의 몸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위의를 갖추어 백장스님에게 “공부

“부처님은 ‘인과 늪’ 벗어나 진리터득하고자 왕자자리도 버리고 수행하셨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자 환력(蕪蕪)이 약간 흥분된 어조로 물기를 “옛날 어른이 한마디의 대답을 그르쳤기 때문에 오백생이나 야호의 몸을 받았다고 했는데 만약 일언일구에 조금도 틀림 없는 대답을 하였다면 그때는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백장스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어서 이리 가까이 오나라 가르쳐 줄 테니”라며 황백스님을 불렀습니다. 스승에게 제자가 다가서더니 스승의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자 황백이 손을 들어 스승 백장의 따귀를 후려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뱀을 맞은 스승은 화를 내기는 커녕 손뼉을 치며 웃더니 “오랑캐의 수염은 붙더니 여기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불락인과”나 “불매인과”의 도리를 수백억 대중가운데 오직 황백만이 알아 들었던 것입니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금

한시도 번뇌의 늪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처음에 들려드린 <공감경>의 말씀은 범부중생이 인과의 도리를 모르고 지어내는 일체의 인연이 허상임을 강조 한 것 이라면 뒤에 들려드린 백장회상(百丈會相)의 이야기는 인연의 도리를 알아들이는 알고 있었되 그것을 잘못 행하면 그 역시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가르치는 일화입니다. 인과를 바로 아는 것은 어떻게하면 과일나무가 병들지 않고 잘 자라 실한 과일을 영글게 하고 또 그 과일속의 씨앗이 좋은 나무로 자라게 하느냐를 아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는 한그루의 과일 나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되어 인연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밝혀 드려야 했는데 이 산승이 입을 열어 인과의 도리를 이야기 하기전 스승의 따귀를 때려 줄 불자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량겁동안 축적된 경험 마음깊이 저장 모든 존재는 무한한 과거의 끝없는 인연

나 내에 대한 집착과 같은 마음이다.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이 등 뒤에 떨어지는 바위를 피하는 것과 같은 것은 이 말라식의 발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기에는 생명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종족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장치로서, 진화의 과정에서 유전자와 같은 생명체의 내부에 각인된 맹목적인 생의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전오식과 의식, 말라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마음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 푸르게 돌아오는 풀을 보고 느끼는 환희,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동경, 타오르는 불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파충류를 보았을 때의 물서리처럼등은 그 근원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한 감정은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에서의 경험이나 그로 인한 잠재 의식 등 어떠한 의식의 편린으로도 포착되지 않으며 또한 제7식과 연관되는 자기에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불교심리학에서의 독특하고 또한 탁월한 부분은 말라식보다 더 깊은 심층부에 자리잡고 있는 매우 깊고 미세한 인간의 마음인 제8 이로아식을 상징함으로써 이

이 지탱되고, 말라식에 의하여 의식이 지탱되며, 의식에 의하여 지각 작용이 지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안에 놓여 있는 객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순간에서의 사건이 아니다. 그저 눈으로 볼으로써 인식 이 생긴다는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 대단히 단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35 억년 생명체의 전역사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안에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객상이라는 대상은 그 자체로 객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객상이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나라는 존재는 무한한 과거와의 끝없는 인연으로 이 지리에 있는 것이다. 이는 실로 무량원겁의 전역사가 안식이라는 한 생각에 녹아드는 사건이라 하겠다. (無量邊劫一念)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무아, 무상의 실상을 보게 된다.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무량겁 동안 쌓인 여러 가지 인연의 맺어짐인 8식으로 살 뿐이니 인무아(人無我)요, 또한 식에 바탕하여 사물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믿지만 이 역시 인연의 맺어짐일 뿐이니 법무아(法無我)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정진·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1. 모집과정: 법사과정·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법사과정=1년, 오종대법사과정=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6년 3월 1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교무처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꿈틀이는... 깊은 풀이, 넓은 만남, 깊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정기구독문의: 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